

여성노인의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경험 현상 연구 : 주간보호센터 이용 노인대상으로

김인숙, 박선희*
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

A Study on Elderly Women’s Experience of the Convergent Tea Culture Therapy Program : Focusing on female elders who use the day care center

In-Sook Kim, Sun-Hee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Business Administration, Tongmy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주간보호센터 이용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경험을 탐색하고 그 융합프로그램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P시 H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경험을 마지막 회기까지 참여 한 여성노인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주간보호센터 이용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경험의 4개의 범주인 되돌림의 일상, 차와 함께 나는 대비마마, 차와 함께 젊은 그대, 차와 함께 행복의 나라로 분석하였다.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실천 영역에서 코비드 19로 인한 노인 여가활동에 관심과 개입이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주간보호센터, 융합프로그램, 현상학 연구, 차(茶)문화, 여성 노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lderly women’s experience of the convergent tea culture therapy program when they use day care centers, ultimately gett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such experience. For the purpose, the study made profound interviews with 4 old women who experienced the convergent tea culture therapy program from its start to final session. That program was provided by H day care center located in P city. And then, this research analyzed data from those interviews by us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udy could divided the surveyed female elders’ experience of the above mentioned program largely into 4 categories, which are, ‘getting away from daily routines’, ‘feeling as if I’m the queen when having tea’, ‘finding myself feeling younger with tea’, and ‘feeling the true sense of happiness with tea’. With this result taken into serious considera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more attention and intervention be urgently needed in the field of senior welfare practices, especially leisure activity for elders which is currently in trouble due to the covid-19 crisis.

Key Words : daily care center, convergent program, phenomenological research, tea culture, elderly women

*교신저자 : 박선희(park_0824@hanmail.net)

접수일 2021년 1월 12일 수정일 2021년 2월 11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15일

1.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2018년도 이미 고령사회를 맞이했으며, 이제 앞으로 2026년(20.8%)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고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1].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24년 걸린 일본을 제치고 고작 17년 만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2].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설 수요도 증가하지만 이제는 노인 돌봄의 사회화로 인해 노인수요증가에 못 미치는 내실화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노인 장기요양제도는 노인 부양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이제는 사회가 나서서 노인 부양에 개입하고 있다. 여러 노인복지시설 중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서비스와 건강하고 안정되며 동년배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최근에 더욱 인기가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들을 보호해주는 시설로 노인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 및 식사관리 등을 담당하기도 하며 일명 노인 유치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2]. 현재 전국에 주간보호센터는 3,982개(2019년 11월 기준)가 있으며, 2019년 12월12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으로 개설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뀌어 관할기관에 이미 개설신청을 한 시설기관들도 많다[3]. 이러한

현실에 시설센터가 생기더라도 앞으로 노인 수요를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성만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로 센터가 증설된다면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원래 취지에 맞는 복지적 관점이 기본으로 하고, 노인 개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기능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여, 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노인의 심리적 상황과 문제점을 세심히 살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자존능력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것에 도모해야 한다.

노인 주간보호센터의 주요 서비스는 거동 불편하신 노인을 위한 목욕서비스, 노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원조하는 여가서비스,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물리치료 기구 및 작업치료기구 이용, 기초 건강체크, 일상생활기능 훈련 서비스, 가정생활 및 건강 등 노인에 관한 전화 및 면접을 통한 상담서비스, 가정생활 및 건강, 영양관리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4-7].

이렇듯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의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며 주간보호센터가 등장한 이후부터 다각 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정

지나의 연구에도 나타나 있다[2]. 주간보호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으로 센터마다 프로그램 진행이 다르다. 프로그램 중 차문화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 문화를 느낄 수 있으며, 차의 유익한 성분을 흡수함으로써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서적으로도 좋은 분위기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8].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와 맥을 같이하는 전통문화인 차문화는 노인들에게 친근하게 편안하게 심리사회적 안정이 향상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관련 연구에서는 노인의 의사소통이 향상된다는 김인숙, 박선희의 연구 결과에도 나타났다[9].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의 인지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순희, 주용국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10]. 김인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이 되었다고 나타났으며[11] 김미규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의 긍정적 사회성 향상에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 또한 김인숙의 연구에서는 황혼이혼 예방을 위한 차문화 프로그램은 결혼만족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13]. 김울리의 연구 결과에서 치매노인에게 차문화 프로그램 활동이 정서, 의사소통,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보았다[14]. 이렇듯 차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들에게도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간보호센터 이용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경험을 탐색하고 그 융합프로그램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주간보호센터 이용 여성노인의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에 관한 현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에 참여 한 노인은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

둘째, 여성노인에게 있어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참여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 노인의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인의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취하여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고,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을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둔다[15]. 현상학적 분석 방법인 Colaizzi는 연구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의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고 주제를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확인을 거침으로써 본질적 구조의 타당성이 확보된다 [16].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 Colaizzi의 분석 방법이 여성 노인의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내용을 추출하여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Colaizzi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17].

2.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자는 P시 소재 주간보호센터 이용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표집경로는 주간보호센터의 직원과 센터장 및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담당강사에게 문서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문서의 내용을 연구자가 다시 연구 목적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우리나라의 정서와도 유사한 민족 토착적 문화인 차문화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색하지 않으며 다도의 체험 수업이라기 보다 차의 색, 향, 미를 음미하여 자신의 오감을 깨우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러 융합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차(茶)는 불교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다.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참여자가 총 7명 중 결석으로 진행에 참여하지 못한 연구 참여자는 제외하였으며 프로그램을 마지막 회기까지 다 참여하신 분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현재 코비드 19로 인해 국가 방역을 준수하며 기관의 지침을 따르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Case | Age | Religion | Spouse | Inmate |
|------|-----|-------------|--------|-------------------------|
| A | 99 | Buddhism | None | Son, Daughter-in-law |
| B | 93 | Catholicism | None | Daughter and her family |
| C | 90 | Buddhism | None | Herself |
| D | 82 | Buddhism | None | Herself |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인터뷰는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기에 1:1의 면접을 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수집하는 동안 연구참여자의 감정, 태도, 경험, 반응 등을 현장에서 메모한 현장 노트를 1차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인터뷰 시 동의를 얻어 녹취한 후 전사하였다. 인터뷰는 노인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개별심층 인터뷰에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였으며, 인터뷰는 자료가 포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주된 질문은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을 경험한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여 이야기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을 해 나가면서 진행했다. 연구 참여자들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표현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대화를 지속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2.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전사한 내용들을 읽고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경험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내었다. 본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분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전공한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과 박사학위를 가진 사회복지사 2인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결과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후 수정된 내용을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끌어낸 의미 있는 진술은 연구자의 언어로 진술하였고, 범주와 주제를 구성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 참여자들의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 중심으로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내용을 확인하며 그들의 본래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member checking). 특히 이 분석 방법은 도출된 주제에 대해 참여자의 검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 있는 주간보호센터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 취지에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Lincoln과 Guba의 엄밀성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16].

3. 연구 결과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로 Colaizzi의 현상학 분석 방법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먼저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연구 코딩 분석을 거쳐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4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된 주간보호센터 이용 여성 노인의 차(茶)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경험에 관한 연구분석 결과로, 27개의 의미 있는 진술들을 찾아내었고 관련 있는 내용의 진술들끼리 묶어 6개의 주제어로 구성하였다. 주제어로 나타난 의미 있는 진술들은 4개의 범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3.1 되돌림의 일상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이전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시간을 주간보호센터에서 보내므로 똑같은 일상의 되풀이로 심심하다고 할 일이 없어 매일 TV만 본다고 하셨으며,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다는 일상을 관조하듯이 표현하셨다.

<참여자 C>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다. 주말에 ... 그냥 집에서 가만히 텔레비전 봤지. 뭐 할 것도 없고... 여기 오면 선생님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라고 놀지...

<참여자 A> 그냥 그냥 지내지. 별다른 게 있다. 눈뜨면 여기 오고 집에 가면 자기... 매일 그렇지 뭐...

3.2 차와 함께 나는 대비마마

차와 함께 대접받고 주는 존재

연구 참여자들은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차잔, 차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신기해했다. 차의 종류를 보고 대응차로 오미자차를 마시며 색, 향, 미를 둔구어 좋아하셨다. 그리고 차자리를 보시며 예날 사극에 나오는 대감집 마마님이 된 것 같다고 하셨다.

<참여자 B> 이런 것도 차로 마시나, 옛날에 집뒤 뜰에

있던 것들이 차로 만들어지네...우리 어릴때 많이 따먹고 놀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를까다. 이것 본 지도 오래 됐다. 나도....

<참여자 D> 신기하고 재미있네. 오늘 호강 한다. 대감집 마마님이 됐다. 차잔 요로게 잡는거 맞아요 선생님...

<참여자 A> 차맛이 좋네...오미자가 새콤하고 그렇네. 말린 오미자로 차를 해서 먹으니 사람한테 좋겠다... 한잔 더 주세요... 따뜻하고 좋네...

3.3 차와 함께 접은 그대

3.3.1 나의 어린 시절

연구 참여자들은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봄으로 자신을 고생시킨 부모님에 대한 회상을 떠올려 보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도 어렸을 때 많은 고생을 했는데 자신의 아이들도 경제력이 없어 학업도 중단하고 대학도 못 다녀 고생시킨 자녀들에게 미안함을 가졌다. 자신이 오래 살아 자식들이 고생이라도 말씀하시기에 고령의 나이에도 엄마를 부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드리니 얼굴이 밝아졌다.

<참여자 A> 차를 마시니 마음이 편안하고 맛도 좋네. 옛날에는 우찌 일이 그리 많았는지.

<참여자 D> 옛날에는 다 손으로 빨래하고 옷감짜고 옷 만들고 그리하고 살았지.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노. 그때는 겨울도 눈도 많이 오고 춥고 다 얼고, 터지고 진짜 고생 많았지...차잔을 잡으니 따뜻하니 좋네. 고생많은 엄마도 이제 생각이 날똥 말똥 한다. 나도 얼마나 나이를 많이 먹었는지

3.3.2 나의 젊은 시절

연구 참여자들은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외도사건을 이제 이 나이에 라고 하시며 말씀하셨다. 또다른 분은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 여행도 가지 못하고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힘들었던 시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지난 삶을 회상도 하시고 서로서로 살아왔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차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온 동료에게는 격려하고 지지해주었다.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해보기 처음이라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차와 함께 나누었다.

<참여자 E> 영감 죽고 나니 혼자 지내보니 적적하고 재미도 없다.. 영감 있을 때는 함께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했는데 이제 아무 재미있는 일이 없다. 아이들 크고 할 때 남편이 퇴근하면서 호떡 사오면 아이들이 둘러앉아 먹는 모습만 봐도 좋았는데... 그때가 재미있었지

<참여자 B> 영감 죽고 아이들 3명 데리고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소 한마리 팔아서 부산 와서 안 해본 일 없다... 영도 살면서 깡깡이 하면서 먹고 살았다.

<참여자D> 형님 참 고생 많이 했네요. 오늘 처음 듣는 말이네... 고생 많이 했는데 차 한잔 잡주세요.

이 좋다고 말하며 차 마시고 거꾸로 숫자세기를 해보니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머리도 좋아지는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런 수업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진 듯하였다.

<참여자 B> 차 마시고 차 제조하고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 요래 이야기하고 맛나는 차 마시고 오늘 좋네...서로 고향 이야기하고..

<참여자 C> 차 수업하고 나면 기분 좋고 재미있다. 매주 이 시간만 기다린다고 진술을 하였다. 거꾸로 숫자세기가 처음에는 잘 안되던데 자꾸하니 잘 된다...

<참여자 A> 노래 부르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좋네. 다들 고생하고 산 세월에 다 비슷하다. 그리그리 세월 간다. 오늘은 무슨 차이고 선생님

3.4 차와 함께 행복의 나라로

3.4.1 지금의 친구들과 함께

연구 참여자들은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자신과도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격려와 지지로 힘이 되어주었다. 지금은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며 차 제조와 차 명상을 해보니 기분

3.4.2 차생활로 행복해진 나

연구 참여자들은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진술하였다. 차도 따뜻하게

<Table 2> Categorization of elderly women's experience of the convergent tea culture therapy program

| Category | Subject | Construct |
|--|---|--|
| Getting away from daily routines | I being before joining the convergent program for tea culture therapy | - Having a feeling of loneliness and nothing that makes me pleased - Watching only TV partially because I'm jobless and partially because everything is boring to me - I have no idea about what is good or bad to me |
| Feeling as if I'm the queen when having tea | Getting better treated by others with tea and vice versa | - Many different kinds of tea make are intriguing to me - Feeling really happy with tea that is made of materials that could have been easily found since the past - New things that make me have curiosity and a lot of fun -Tea ceremony makes me feel as if I become a woman of nobility |
| Finding myself feeling younger with tea | Days of my childhood | - Recollecting parents who were difficult because of me - Feeling sorry about children that I made difficult when they were in childhood - Heartbreaking thinking of mother who was just working for family - Drinking tea warms my heart, and makes me think of children who are my pride |
| | Days of my young adulthood | - Talking with a smile about spouse's cheating on me in the past - Losing interest in daily life after husband passed away - Recollecting my difficult lives of the past that were out of my control - Years of helping others or getting help from them - Talking to others about how I lived in the past - Advocating my past lives and patting on me give the feeling of comfort |
| Feeling the true sense of happiness with tea | Enjoying tea-drinking together with friends | - Feeling emotionally connected with friends whose lives are not so different from mine - Friends who listen to my hardship and verbally exchange their thoughts about the difficulty reinvigorate me - Sharing a story of my past difficult days with friends - Leading me to keep in min the importance of health maintenance - Practicing workout and meditation in relation to tea makes me feel delightful - Playing number-counting while drinking tea makes me feel pleasant and get more intelligent - Feeling pleasure and brightness |
| | Feeling happy with tea in daily life | -Feeling gratitude towards others that makes me pleasant -Getting determined to live a fun life with smile like I did so to this day -Taking on the side of others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their situations |

마시고 마음도 좋아지고 재미있고 시간도 너무 잘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찻잔 잡는 자세도 자연스럽게 손 자세가 바르지 못한 분께는 서로 자세까지 알려주는 모습을 보았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기분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웃는 얼굴로 지금처럼 앞으로도 재미있게 살자고 하였으며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 A> 요래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좋네
기분도 좋아지... 맛있는 차도 마시고 재미나게
이야기도 하고....

<참여자B> 선생님 오래 있다가 가이소 . 와 이리 금방
가는교. 이렇게 늙은이 보려 와워서 고마워요...

<참여자 D> 아프지 말고 삼시다. 영기 와야 재미있거
하루도 빨리 지나간다... 재미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노인이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그 경험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경험을 이해하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4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연구자가 융합프로그램을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Colaizz의 현상학의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간보호센터 이용 여성노인의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4개의 범주와 6개의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구성된 의미로는 27개로 도출되었다. 범주로는 되돌림의 일상(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이전), 차와 함께 나는 대비마마(차와 함께 대접받고 주는 존재), 차와 함께 젊은 그대(나의 어린 시절, 나의 젊은 시절), 차와 함께 행복의 나라로(지금의 친구들과 함께, 차 생활로 행복해진 나)로 나타났다.

그동안 노인 대상을 한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한 바가 전무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바를 내부자적 관점에서 살펴 경험의 본질은 본 늙은이의 주제무엇인지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노인복지 실천현장에서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의

보급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여성노인 대상의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은 주간보호센터에서의 일상을 보내시는 고령의 노인들로 생의 마무리에서 자신과 통합하며 지나온 세월에 긍정적인 회상만 가지도록 노인복지 실천에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질적연구는 연구자의 자세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밀하게 심도 있게 관찰하며 연구참여자의 심리사회적인 면까지 세밀하게 살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령의 노인에게 지금 즐겁고 힘나게 하는 것은 어린 시절 즐거웠던 추억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에 관한 이야기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현재는 힘없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루는데 힘이 드니 마냥 즐겁지만 않는 것 같다. 고령의 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1회기성이 아니라 자신에게 긍정적인 기억을 찾도록 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보급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P시 H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여성노인으로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을 참여한 노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모두 연령은 82~99세였다. 후속 연구로는 초고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P시에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일정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본 연구가 노인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노인복지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은 있으나 실제로 초고령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미흡하다. 추후 연구는 초고령 노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http://kostat.go.kr>.
- [2] J.N.Jeong,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Activation Plan of the Adult Day Care Center: Focused on Jeollabukdo,"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34 No.1, pp.69-89, 2020.
- [3] <http://www.mohw.go.kr>.
- [4] S.J.Choi and I.H.Jang, *Welfare Studies for the Elderl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6.
- [5] O.N.Yang, H.K.Kim, H.O.Park and S.D.Jeong, *The*

Theory of Welfare for the Elderly. Seoul: Community, 2016.

- [6] H.Y.Lee, The Theory of Welfare for the Elderly. Seoul: Changji, 2019.
- [7] <http://www.elder.or.kr>
- [8] Y.O.Kim, "A Study on the Tea Therapy Program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Graduate School of Oriental Studies Wonkwang University, 2019.
- [9] I.N.Kim and S.H.Park, "Tea Culture Therapy Program for Interpersonal Relations Improvement of Elders at the Senior Center," *The Journal of Tea Culture & Industry Studies*, Vol.24 No.4, pp.30-39, 2018.
- [10] S.H.Kim and Y.K.Joo, "Effect of Tea Culture Therapy Program on the Cognition and Depression of the Aged," *The Journal of Tea Culture & Industry Studies*, Vol.21, No.3, pp.12-22, 2015.
- [11] I.S.Kim, "Tea Culture program for the Treatment of Dementia and Cognitive Function," *The Journal of Tea Culture & Industry Studies*, Vol.33, pp.35-62, 2016.
- [12] M.K.Kim, "The Effect of the Tea Culture Therapy Program on the Improvement in Sociality of Elderly Peopl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AYA University, Social Welfare Studies, 2014.
- [13] I.S.Kim, "Tea Culture Program for the Treatment of Dementia and Cognitive Function," *The Journal of Tea Culture & Industry Studies*, Vol.25, No.4, pp.22-31, 2019.
- [14] Y.R.Kim, "The Effects of Tea Culture Program on Psychological and Social Stability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 Focusing on Emotion, Communication, Sociality," Major in Etiquette and Tea Graduate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2018.
- [15] H.S.Cho, S.W.Jeong, J.S.Kim and J.S.Kw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Hak-ji-do, 2013.
- [16] K.N.Sim, M.O.Jin, J.H.Yang, et 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10.
- [17] F.E.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R. S. Valle, M. King & S. Halli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김 인 숙(In-Sook Kim)

[종신회원]



- 1998년 2월 : 부산대학교 가정학과(이학박사)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3년 2월 ~ 2015년 2월 :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복지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차문화치료, 사물인터넷, 평생교육 융합프로그램

박 선 희(Sun-Hee Park)

[종신회원]



- 2018년 8월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1월 ~ 2017년 2월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2012년 8월 ~ 2016년 1월 :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겸임교수
- 2016년 3월 ~ 2019년 6월 : 동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2019년 8월 ~ 2020년 12월 :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겸임교수
- 2021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복지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차문화치료, 사물인터넷, 평생교육 융합프로그램